

광주FC, 상하이 하이강 꺾고 16강 확정 짓나

오늘 2차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6차전 4승 1패 승점 12... 승리 시 7위 확보 오스카 포프·구스타보 등 봉쇄 관건 이정호 “올해 마지막을 승리로 장식”



창단 첫 아시아 무대 도전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K리그의 자존심' 광주FC가 올해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를 노린다. 광주 선수단은 원정에서 '중국 챔피언' 상하이 하이강을 꺾고 16강 진출을 확정 짓겠다는 각오다.

광주FC는 3일 오후 9시(한국 시간) 중국 상하이 푸둥 축구장에서 상하이 하이강과 2024-2025 AFC(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리그 스테이지 동아시아 6차전을 치른다.

아시아 무대에서 개막 3연승을 달렸던 광주FC는 비셀 고베에게 일격을 당했으나 상하이 선화를 잡고 다시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리그 스테이지에서 4승 1패(승점 12)로 동아시아 2위에 오르며 16강 진출에도 청신호를 켜었다.

이번 원정은 광주FC에게 16강 진출을 조기 확정할 수 있는 기회다. 동아시아 8위까지 16강 티켓이 주어지는 가운데 이번 경기에서 승리하면 남은 두 경기 결과에 관계없이 최소 7위를 확보할 수 있다.

현재 동아시아 5위부터 9위까지 다섯 팀은 나란히 2승 1무 2패(승점 7)로 골득실에 의해 순위가 갈린 상황이다. 광주



광주FC가 3일 오후 9시(한국 시간) 중국 상하이 푸둥 축구장에서 상하이 하이강과 2024-2025 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리그 스테이지 동아시아 6차전을 치른다. 광주FC 선수단이 지난달 27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상하이 선화와 5차전에서 선제골을 터트린 뒤 기뻐하고 있다.

FC가 승리할 경우 8위인 상하이 하이강과 8점 차가 되고, 이 범위 내에 있는 조호르 다룰 탁짐 FC와 부리람 유나이티드 FC의 맞대결 결과에 따라 최소 한 팀은 승점 7점 이상의 격차를 유지한다.

광주FC의 이번 경기 핵심 키워드는 수비가 될 전망이다. 올해 중국 슈퍼 리그(CSL) 챔피언에 등극하며 2연패를 차지한 상하이 하이강은 30경기에서 96득점

과 30실점을 기록하며 날카로운 공격과 동시에 탄탄한 수비를 구축했다.

특히 브라질 국가대표 출신으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첼시 FC에서도 활약한 오스카르 두스 산투스 임보아바 주니오르(오스카)를 중심으로 한국 무대 경험이 풍부한 구스타부 엔히키 다 시우바 소우자(구스타보)와 윌리엄 포프 등 화려한 공격진이 위협적이다.

또 무릎과 갈비뼈 등 최근 크고 작은 부상에 시달리고 있는 중국의 간판 공격수 우레이도 전력에 복귀할 수 있고 잉글랜드 연령별 국가대표 출신 귀화 선수 장광타이(타이어스 브라운)를 비롯해 웨이전과 안 준링 등 중국 국가대표팀 주축자 원들도 건재하다.

상하이 하이강이 직전 경기에서 K리그 챔피언인 울산HDFC를 상대로 전반 중반

리앙의 퇴장 변수에도 3-1 완승을 거뒀다는 점도 경계 요소다. 당시 상하이 하이강은 수적 열세에도 마티아스 바르가스 가해트릭을 폭발시키며 승점 3점을 챙겼다.

광주FC는 이번 경기에서 토종 라인업을 가동해야 하는 상황이다. 빅토르 가브리엘 티그랑, 브루노 올리베이라, 베카 미켈타제가 차례로 부상 이탈한 상황에서 아시아 무대에서 득점 선수를 달리고 있는 자시르 아사니마저 알바니아 국가대표팀 소집 여파로 이번 원정에 합류하지 못했다.

믿을 건 조직력이다. 전방에서 허울과 이견희, 최경록, 신장무, 증원에서 이희균과 정호연, 박태준, 오후성, 후방에서 이민기와 안영규, 변준수, 김경재, 김진호 등이 얼마나 짜임새 있는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경기 결과의 향방이 바뀔 수 있다.

이정호 감독은 광주만의 색채를 유지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감독은 사전 기자회견을 통해 “그라운드 컨디션도 좋고 날씨도 좋았다”며 “ACLE는 광주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마지막을 잘 장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또 “외국인 선수가 없는 것은 큰 리스크다. 칼에 날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면서도 “외국인 선수 유무를 떠나 우리만의 공격 축구를 잘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버티지 않고 공격적으로 나가보겠다”고 강조했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한국 여자 핸드볼, 아시아선수권 결전지 인도로

세계여자핸드볼선수권대회 진출을 노리는 이계정호가 전조전인 아시아여자핸드볼선수권대회에서 7연패 도전을 위한 마지막 담금질을 마치고 결전지인 인도 뉴델리로 떠났다.

대한핸드볼협회는 이계정 감독(삼척시청)이 이끄는 한국 여자 핸드볼 국가대표팀이 지난 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고 2일 밝혔다. 이계정호는 지난달 11일부터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아시아여자핸드볼선수권대회 대비 훈련을 진행해 왔다.

제20회 아시아여자선수권대회는 3일부터 10일까지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되며 상위 4개 국가에 제27회 세계여자핸드볼선수권대회 출전권이 주어진다. 이계정

호는 싱가포르, 중국, 카자흐스탄과 A조에 묶여 조별 예선을 치르며 B조에는 이란과 인도, 일본, 홍콩이 편성됐다.

이계정호는 3일 싱가포르와 조별 예선 1차전을 치른 뒤 4일에 카자흐스탄과 2차전, 6일에는 중국과 3차전을 치르며 2위 이내에 들 경우 준결승에 통과해 세계 무대 티켓을 확보한다.

광주도시공사 소속으로는 레프트윙 서아루와 레프트백 김지현이 이번 대회에 나선다. 또 2024 파리 올림픽에서 활약한 송해리(부산시청)와 김보은, 박세영, 전지연(삼척시청), 우빛나, 정진희(서울시청), 강은서(인천시청) 등도 변함없이 국가대표팀에 힘을 신는다.

한규빈 기자



영암군민속씨름단 김민재가 지난 1일 영암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위더스제약 2024 천하장사씨름대축제에서 천하장사에 오른 뒤 트로피를 들고 기뻐하고 있다.

대한씨름협회 제공

KIA, 내년에도 다문화 가족 위한 야구 캠프 연다

오는 11일까지 선착순 모집

KIA타이거즈가 올해 호남 지역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주말 야구 체험 캠프를 내년에도 이어간다.

KIA는 '2025 KIA타이거즈 유스 베이스볼 캠프'에 참가할 광주·전남·전북 지역 다문화 가족 자녀 30명을 오는 11일까지 구단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선착순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유스 베이스볼 캠프는 KIA가 사회 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올해 첫 시도에서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받으며 내년에도 이어가게 됐다.

캠프 참가자들은 퓨처스 팀 훈련장인 함평-기아챌린저스필드에서 내년 2월 세 차례 야구 교육을 받게 된다.

주차별 프로그램은 야구 규칙 설명부터 기초 체력 훈련과 수비 훈련, 미니 게임 등으로 구성되며 마지막인 3주 차에는 자체 연습경기(흑백전)를 치른다. 흑백전 최우수 선수로 선정된 참가자는 홈경기 승리 기원 시구를 위해 마운드에 오를 기회를 받는다.

또 참가자 전원에게는 야구 용품 지급과 숙식, 다음 시즌 홈경기 초청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한규빈 기자

영암군민속씨름단 김민재 “천하장사 만만세”

2024 천하장사씨름대축제 제패

‘전남 씨름간판’ 김민재(영암군민속씨름단)가 안방에서 개인 통산 두 번째 천하장사에 등극하는 쾌거를 이뤘다.

김민재는 지난 1일 영암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김지을(울주군청)과 ‘위더스제약 2024 천하장사씨름대축제’ 천하장사 결정전에서 3-0 완승을 거두며 올해 국적과 체급을 망라한 씨름의 최강자가 됐다.

앞서 김민재는 8강에서 최성민(태안군

청)을 2-0으로 가볍게 꺾은 뒤 준결승에서 김찬영(정읍시청)을 상대로 접전 끝에 2-1 승리를 거두며 천하장사 결정전에 진출했다.

천하장사 결정전에 나선 김민재는 김지을을 상대로 첫 번째 판과 두 번째 판에서 모두 밀어치기에 성공하며 확실한 승기를 잡았고, 세 번째 판에서는 들배치기에 성공하며 마침표를 찍었다.

이로써 김민재는 안방에서 개인 통산 두 번째 천하장사에 등극했다.

김민재는 울산대 재학 중이던 2022년

‘위더스제약 2022 천하장사 씨름대축제’에서 1985년 이만기 이후로 37년 만에 대학생 천하장사에 오른 바 있다.

또 올해 문경장사씨름대회를 시작으로 강릉단오장사씨름대회, 보은장사씨름대회, 삼척장사씨름대회, 추석장사씨름대회 등 5개 대회에서 백두장사(140kg 이하)에 오른데 이어 여섯 번째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개인 통산 타이틀은 천하장사 2회와 백두장사 12회 등 총 14회로 늘었다.

한규빈 기자